

## 안전협회, 화학제조업 사업장에 무상 특별점검 실시



안전협회(이홍지 회장)는 화학제조업에서 폭발·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산업 사회에서의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설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안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 점검은 2003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문기술자 3인으로 구성된 총 15개의 점검팀이 전국 147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원하였다.

한편, 안전협회는 이번 동절기동안 실시된 무상 특별점검이 산업현장에서의 큰 호응을 얻었고, 폭발·화재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 롯데건설, 안전관계자 맞춤형교육 가져

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이영조 국장)에서는 롯데건설의 도로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해 이론에서부터 실기 및 체험 학습 위주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안보 한화리조트와 알프스리조트 연수장 2개소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롯데건설의 도로 현장 중 “청주 우회도로 및 분당 도로 공사 현장”과 “삼척근덕간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관계자 65명에 대해 실시되었다.

한편, 안전협회 교육관계자는 최근 동절기를 이용한 건설현장에서 관리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 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기업 자체 계획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이러한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좋은 징조라고 얘기한다.



## SK(주)울산 COMPLEX 협력업체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안전협회(이흥지 회장)는 전문가 교육과정으로 SK주식회사 울산 COMPLEX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에 대해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교육을 가졌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일동안 일성 지리산 콘도연수장에서 합숙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SK주식회사 울산 COMPLEX 현장 실정에 맞춘 전문적인 안전관리기법 및 각종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SK주식회사 울산 COMPLEX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52명이 수강한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의 책임의식과 자율안전관리능력이 배양되는데 큰 보탬이 되었고, 협력업체와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안산지회, 관내 2004년 산재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안전협회 안산지회(김영옥 국장)는 2004년을 맞이하여 관내 사업장에 금년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2월 20일 안산지회 교육장에서 실시된 이번 세미나는 관내 기업 75개사에서 안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산지방노동사무소 김정희 산업안전과장의 2004년 산업안전보건 정부시책에 대한 발표로 시작되었다.

김정희 산업안전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내 산업재해취약부분 안전관리 강화 등 2004년도 산업안전보건업무추진 세부 지침과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최근 안산지역에서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Safety News

## 고령취업자 10명 중 9명 단순 노무·농어업직

50세 이상 준고령자와 고령자 10명 중 9명이상이 단순노무직이나 농림·어업직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낸 “준·고령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노동부 고용안전정보망(WorkNet)에 집계된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을 분석한 결과 50~59세 취업자 12만1934명 가운데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90.0%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기술·기능직 5.4%, 서비스 관련직 2.2%, 경영·금융·무역·사무관련직 1.6%, 교육·의료·문화 관련직 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취업자 4만9963명 중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직이 94.4%에 달해 기술·기능직(3.3%)과 서비스 관련직 및 경영·금융·무역·사무 관련직(1.0%), 교육·의료·문화 관련직(0.2%)의 비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1월 중 3446건 화재로 62명 사망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13일, 1월달에 전국적으로 3446건의 화재가 발생, 62명이 사망하고 201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주택 및 아파트 988건, 차량 545건, 공장 및 작업장 393건, 음식점 229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의 원인으로는 전기가 1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담배 366건, 방화 294건, 불티 155건, 아궁이 135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소방서에서는 전국적으로 159억 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추산했다.

## 노동부, 대형건설현장 자율안전 관리 내실화

노동부는 올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활동이 가능한 대형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에 더욱 내실화를 기하고 건설재해를 줄여 나간다고 밝혀 시공능력순위 900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대상을 1000대 업체까지 확대·관리한다.

조사결과 재해율이 우수한 업체의 경우 오는 7월부터 1년간 각종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재해율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각종 점검시 우선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재해율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

또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지하철, 항만, 발전소, 일반국도, 댐,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7개분야 SOC시설 건설현장도 재해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